NT·BT 융합기술에 1조8000억원 투자

나노(NT)·생명(BT)·정보(IT)·인지(Cogno) 기술 등 두 가지 이상의 분야를 결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융합기술' 분야에 정부가 올해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7월5일 제6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2009~2013년)' 가운데 201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융합기술 분야 투자액은 1조8180억원으로, 2010년보다 15.3% 늘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주도형 기초·원천 융합기술 확보 차원에서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융합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로봇·컨텐츠·농생명공학기술 등 전략적 선도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인문사회·문화 등 학제간 연구를 비롯, 국내외 융합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범부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융합정책연구센터(가칭)'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김차동 국과위 운영위원장은 "삶의 질과 미래 환경을 개선하는 융합 신기술 확보를 위해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개방형 융합 공동 연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의 선행기획 연구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 등을 사전 검토했다. 이들 안건은 수정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7월21일 6차 국과위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5>